

주일 예배 순서

- 부활절 제5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84:1-4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35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5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늘 저희 눈에 밝히 보여주옵소서. 또한,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그들에게 행복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주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셔서, 억울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주의 공휟하심과 구원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요한일서 3:4-12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까?”

- 봉 헌(offering) 2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507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에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어머니의 날 애찬을 섬겨주신 남선교회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지난주에 있었던 합동임원회에서 현재의 속회조직을 재편성하여 주일 애찬 후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동북오하이오 교역자연합회 월례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제목>

-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종전과 평화를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도록.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좌골신경통 및 빈맥증)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

<말씀묵상> 요한일서 3:4-12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음이라 10 이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라

1. 사도는 죄가 무엇이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4-8절) 내가 미혹이 와도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2.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9-10절)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관해 속고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지만,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전적으로 옳은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단연코 그럴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철저히 죄와 관련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죄의 유혹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씨, 곧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거듭난 자에게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주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통해 죄에 종이 되었던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을 대적하는 죄와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